

新광주 메트로폴리탄 구상·문화수도 종합계획 반영

2025 광주 도시계획 수립 착수

지속가능 발전 역점 도시기능 재정립

광주시가 광주와 인접지역인 나주·담양·장성·함평·화순 등 5개 시·군의 경제권을 하나로 묶는 신 광주 메트로폴리탄 구상과 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 등을 반영, 도시 기능을 재정립하는 '2025년 광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시는 지난 2004년 수립한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신 광주 메트로폴리탄 구상과 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을 수용하기 위해 최장만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2025년 도시기본계획안 마련에 들어갔다.

TF팀은 마케팅, 문화체육, 경제, 사

회복지, 환경녹지, 도시교통 등 6개 분야로 구성했으며 분야별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이 참여하고 있다.

계획 수립의 기본 방향은 ▲국토 및 도시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 기능 재정립 ▲환경친화적 토지 자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활용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등이다.

이번에 수립되는 도시기본계획은 정부의 제4차 국토계획 수정계획 등 74개 계획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으며, 이 가운데 기존에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63개를 제외한 11개가 신규 계획이다. 또 기존 계획 63개 가운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비롯한 48개는 그대로 반영되며, '광주 도시경관 기본계획' 등 나머지 15개는 수정·보완될 예정이다.

시는 각 분야의 용역 과제가 기존에는 보고만으로 마무리됐던 것과 달리 이번 도시계획에서는 자문위원단의 품질 평가를 실시, 용역 보고서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다음 단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신규계획 11개 가운데 '광주 공원녹지 기본계획' 등 3개는 다른 계획과 병행 추진하고 8개는 다른 용역 과제의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16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도시계획은 6월 발주돼 이르면 2009년 말에 완성될 예정이다.

/이종형기자 jrwi@kwangju.co.kr

북구 주민여론 이끌
365 오피니언 그룹
276명 선정 위촉식

광주시 북구 주민여론을 이끌어갈 '비전 365 오피니언 그룹'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북구청은 "14일 사회단체·전문가·주민 등 276명으로 구성된 '비전 365 오피니언 그룹' 위촉식을 갖는다"고 13일 밝혔다.

오피니언 그룹은 구정(자치행정·경제문화·사회복지·생활환경·도시교통)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맞춤형 행정서비스에 반영할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들은 지난 3월 말 공개모집과 동장 추천을 통해 위촉됐다.

/이종형기자 gilee@



5·18 모역 정비 13일 광주시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북구청 신규 직원 등 50명이 묘역 내 비석을 닦고 있다. 이들은 이날 헌화 및 참배를 마치고 2시간 동안 묘역 주변 환경정비활동을 펼쳤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소학교 시절 은사 4년째 '보은의 간병'

일본인 오오쓰카 데루코씨 한·일 오가며 돌봐

"그리웠던 한국의 '정'을 다시 느낄 수 있게 해주신 선생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있을 뿐입니다."

일본인 오오쓰카 데루코(78·사진)씨는 4년째 광주시 광산구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8순의 노인 환자를 돌보고 있다. 그녀의 간병을 받고 있는 노인은 소학교 시절 선생님이던 J(85)씨.

일본간접기 당시 경성의대에서 강의를 하던 아버지 때문에 한국에서 태어난 오오쓰카씨는 경성사범대 부속 소학교를 다니던 시절 견습 교사로 근무했던 J씨를 처음 만났다.

해방 후 일본으로 귀국한 오오쓰카와 J씨의 인연은 그후 수십년 동안 끊겼다. 18년전인 지난 1990년 친구로부터 오오쓰카씨의 소식을 들은 J씨가 일본인 동창을 만나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가 그녀를 찾았다.



당시 부인과 사별했던 J씨는 그때까지 미혼이었던 오오쓰카씨에게 낯다른 감정을 가졌다. 이후 두 사람은 일본과 한국을 100여차례 오가며 서로간의 정을 쌓아갔다.

그녀는 J씨의 안내를 받아 서울 거리와 무등산, 해남 땅끝 등을 찾기도 했고, 한국을 다시 찾는 감회를 200편의 시로 남기기도 했다.

'학교의 연으로 맺어진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구나'라는 내용의 시에서는 J씨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행복했던 시간도 잠시, 지난 2004년 J씨에게 치매가 찾아왔다. 하지만 오오쓰카씨는 주변의 예산을 깨고 오히려 J씨를 돌보기 위해 한국을 더 자주 찾았고, 4년 전 J씨가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자 4주는 한국에서, 1주는 일본에서 생활하며 정성으로 J씨를 돌봤다.

오오쓰카씨는 "4년 동안 그를 돌본 것은 잊었던 한국을 느끼게 해준 J씨의 은혜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였다"며 "그를 간병하면서 한국을 다시 찾고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그리움도 사라져 오히려 기쁘다"고 말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소년체전 기간 성인 방송 꺼주세요

광주시 숙박업소 음란물 차단 간간힘

광주시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광주에서 열리는 제 37회 전국소년체육대회(이하 소년체전)에 앞서 시내 숙박업소의 성인용 방송을 차단하기 위해 간간힘을 기울이고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시내에 있는 관광호텔과 모텔·여관은 800여 곳. 시는 이 업소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여 시설과 주변 환경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 490곳을 소년체전 지정 숙박업소로 정했다.

500명가량 재울 수 있는 시정 소년수련원과 함평·담양 등 인접 시·군의 기숙사 등을 모두 활용해도 선수만 1만1천893명에 이

르는 소년체전 참가 인원을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 업소의 상당수가 객실마다 성인용 방송을 시칠할 수 있고 각종 성인용품 자판기와 음란 유인물 등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는 점. 자칫 '체육 꿈나무'들의 관한 잡자리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게 시의 걱정거리다.

시는 결국 지난달부터 한 달여 동안 이들 490개 업소에 '성인 위생방송과 인터넷 성인물 등 각종 청소년 유해 매체가 방영되지 않도록 차단해 달라'는 협조 서한문을 보내고 일일업주들의 동의를 받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

상무지구 美쇠고기 한우 속여판 식당 휴업 인근 고깃집도 손님 끊겨 울상

광주의 한 대형고깃집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대량 판매해온 사실이 밝혀진 것을 계기로 인근 쇠고기 전문 음식점에도 손님들의 발길이 끊겨 업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13일 광주 서구 상무지구의 대형고깃집들에 따르면 지난 6일 상무지구의 H음식점이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다 식약청 등 관계당국에 적발된 사실이 알려진 뒤 손님수와 매출액이 급감했다.

상무지구의 유명 고깃집인 A업소는 평일 기준 하루 500명에 이르던 고객이 지난 8일부터 절반 수준인 200여명으로 줄었으며 30건에 달하던 예약건수도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이 업소 관계자는 "미국산 쇠고기

를 속여 판매한 업체가 아니냐'는 항의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며 "현관에 사실이 밝혀진 것을 계기로 인근 쇠고기 전문 음식점에도 손님들의 발길이 끊겨 업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상무지구의 또 다른 대형고깃집인 B업소는 인터넷 포털에 '이 음식점이 적발된 업소'라는 엉뚱한 댓글이 올라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한편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팔다 적발된 H음식점은 13일부터 휴업에 들어갔으며 광주 서구는 식약청으로부터 단속 자료 등을 전달받는 대로 H음식점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광주광역시교육청

꼭내영교육학

529-0090 개강 7월 4일

자격증 취득하고 싶다면

한국관광협회

023144-0075-8

해피빈의 꿈

신가문점 958-5060 | 예곡점 576-8833

해피빈의 자랑을 주세요

신가문점 958-5060 | 예곡점 576-8833

미도

확장개업

정통일식

14,000 | 15,000 | 18,000

234-0001